

1. “선택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최하고 ATV 한국농림수산방송 주관으로 11월 6일(화)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7천여명의 농업경영인과 농민,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치러졌다. 1997년, 2002년에 이어 3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의 농업회생 의지를 들어보고, 농정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행사로, 향후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 한농연은 토론회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가신용회복기금 마련 ▲농촌의 3대 양극화 해소 ▲환경자원직불제 도입 ▲ 한반도 농업공동체 건설 등 13대 농정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참여한 2007년 대선 정국 들어서 최초로 모든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유일무이한 토론회로 기록되었다.
- 박의규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농업·농촌이 꿈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 회생에 적극 나설 훌륭한 대통령을 농민의 힘으로 선출하자고 촉구했다. 참석한 대선 후보들은 한-미 FTA 피해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결,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혁,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법제화 및 쌀값 보장,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농산어촌 100만개 일자리 창출, 농정추진체계 혁신 등 다양한 농정공약 제시했다.
-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6인의 대선후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초유의 행사인 만큼, KBS, MBC, SBS, YTN 등의 방송사와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통신사, 각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들의 열띤 취재경쟁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 한농연-홍문표 의원 공동 주최 ‘쌀소득보전 직불금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 열려

- 11월 9일(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쌀소득보전 직불금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윤석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새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당분간 목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목표가격을 동결해도 과잉 공급을 초래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며, 추가 재원소요도 현행 예산 1조 1천억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올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법 개정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정신 계승 2007 도농 어울림 한마당 마라톤대회 성료

- 11월 18일 개최된 마라톤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대회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칸쿤에서 산화하신 이경해 열사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로 전국의 마라토너들과 농업인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4. 한EU FTA 동향

- 11월 19일부터 벨기에 브리셀에서 한EU FTA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최대쟁점인 농산물 개방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EU측은 한미FTA에서 합의한 수준의 양허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우리 측은 쌀을 협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실분양의 핵심품목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계절관세 적용, 관세부분감축, 농산물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 적용 등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다. EU 측이 12월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인어서 5차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